

컴퓨터학콜로키움 (COSE-405) :: 15 주차 한태경 이사님

데이터를 활용한 퀀트 투자자

강의 : 2022-12-24 / 작성 날짜 : 2022-12-24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2017320108

고재영

인류 역사상 여태까지 대단히 많은 발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몇십년간을 한정해서 본다면 단연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분야를 이 중 한가지로 뽑아 볼 수 있다. 비단 해당 개념 자체가 혁신적이기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분야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활용되는 점이 이를 강력하게 만드는 점이기도 하다. 그 기저에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데이터를 통해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무형의 통찰력을 통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분야도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서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밀접한 투자와 관련지어서, 스타트업 '두물머리'의 한태경 이사님께서 강연을 하셨다.

시작하기에 앞서, 필자는 처음 알게 되어 생소했던 퀀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퀀트는 금융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양적인 가치에 분석적인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양적 분석을 주식 투자에 관련지어 이야기를 여셨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전의 패러다임은 워렌 버핏식의 투자가 성행했다고 본다면, 최근 20년 이상 살아있는 상위 20%에 대해서 본다면 전부 데이터 기반한 투자에 근거한다고 한다. 이전과 달리,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데이터를 접할 수 있을 뿐더러 이를 활용하는 데에도 용이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실행가능한 합리적인 전략을 발굴해내어서 이를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접근일 것이다. 물론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라던지, 이벤트에 대한 대응이 힘들 수 있지만 높은 객관성이나 위험관리 및 반복가능성과 심리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점이 계량적인 퀀트 투자의 이점으로 자신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내용과 비롯하여 여러가지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도 덧붙이셨다.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하는 점 중 하나는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단기 성공담을 통해 쓴 책을 맹신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보통 사람들은 높은 수익률을 통한 이익 창출이란 공동의 목표로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패턴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패턴을 발굴해 내어 이를 적용함으로 성공한 무용담과 같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책에 녹이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를 통계학적으로 본다면 생존자 편향의 오류와 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추출해 낸 동일한 패턴을 가진 종목 중 분명히 상장폐지되거나 성공적이지 못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커버리지가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보통의 경우 이를 간과하기 마련이다.

필자의 개인 경험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해보자면, 재작년 코로나 초기 때가 기억이 난다. 해당 시기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일명 주식 붐이 크게 불었고 주식 투자 장에 있어서는 호황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너도 나도 시작한 때였다. 필자도 투자에 관해 공부를 시작해보며 입문을 하려 했지만 실제로 시작은 하지 않았으나, 몇 가지 스스로에게 원칙을 정했던 점이 기억난다. 오늘 연사님께서 몇 가지 언급하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심리에 반하는 중요 원칙들을 듣다보니 몇 가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재밌었다.

이번 강연에서 인상적인 기억 중에 하나는 해당 업계에서 중요한 점은 굉장히 fancy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해당 데이터들이 다소 정제되어 있지도 않고, domain-specific한 통찰력을 요구하는 점으로 인해 feature engineering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사님께서도 시장에서의 투자자의 심리에 관한 feature를 추출하는 것도 연구되고 있다고 언급하셨다. 투자 금융에 있어서 생각보다 비이성적인 투자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양식에 있어서 그 기저에 있는 현상 분석이 이루어지는 점이 꽤나 흥미롭게 다가왔다. 이에 대한 일례로 애널리스트들이 산정한 적정 주가의 평균에 관련하여 나타나는 상식과 전혀 반대되는 결과를 수반하는 패턴을 언급하신 점도 꽤나 흥미로웠다.